

저수지에서 '검은빛 물안개'가 피어 오른다. 뒤이어 거대한 고래가 해염을 치듯 움직인다. 토네이도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소용돌이로 변한다. 이때바나 외계에서 온 생물인양 제모양을 마음대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공상과학(SF) 영화에서 본 거대한 우주전함같이 하늘을 뒤덮는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내고 있는 가장오리 수십만 마리가 해질 무렵 한꺼번에 날아오르며 붉은빛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는 황홀한 군무(群舞)다. 전 세계에 있는 가장오리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한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연해주 등지에 퍼져 여름을 나는 가장오리는 약 40만 마리, 4~5월쯤 태어난 새끼가 비행 능력을 익히면 가장오리는 시베리아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여행을 떠난다. 처음 들러 머무는 곳이 충남 서산 천수만이다. 한 달 정도 머물다가 남쪽으로 이동한다.

금강과 고창 일대에는 약 35만 마리가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전남 영암의 영암호, 해남의 고천암호,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등으로 흩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만 세계적인 희귀조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수록돼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 같은 가장오리가 대거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셈이다.

최근 가장오리 군무를 볼 수 있는 여행지로 떠오른 전북 고창의 동림저수지를 지난 14일 찾았다. 평일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곳은 가장오리 탐조여행에 안성맞춤이다. 적당한 너비의 강과 호수, 펼쳐진 농경지 등 가장오리에게 필요한 천혜의 생태 조건을 갖췄다. 더욱이 주변에 인적이 드물고 아직 덜 알려진 덕분에 찾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몇 년 전부터 가장오리가 몰려들고 있다. 천수만 등지에서 활동하던 오리때가 각종 개발 사업과 탐조 인파를 피해 좀 더 외진 곳으로 몰려온 것 같다는 분석이다. 가장오리의 군무는 천적을 피해 밤에 먹이를 찾아 들녘으로 이동한 뒤 아침에 저수지로 복귀하는 과정이다. 덕분에 거의 매일 두 번이나 볼 수 있다.

낮에 찾은 동림저수지는 조용하고 평화롭다. 천적이 접근하지 못하게 저수지 가운데 때지어 자리를 잡은 가장오리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 마치 거대한 검은 줄이 쳐진 듯하다.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며 하늘을 노랑과 붉은빛으로 채색할 무렵 가장오리들은 이쪽저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며 화려한 비행을 준비한다.

**호수·농경지 등 천혜의 생존 조건
금강·고창 일대 35만여 마리 찾아
먹이 찾아 이동해 하루 두 번 관찰
석양 물들 무렵 6시쯤 飛翔 시작
길게는 20~30분까지 장편 연출**

아무도 오후 6시쯤 선두의 흰한 오들이 이어지자 일제히 날갯짓을 한다. 차례로 광중으로 떠오른 무리는 앞서거나 뒤서거나를 반복하며 다양한 모양으로 세를 과시한다. 수십만 개의 점으로 그려진 점도화(點描畫)나 다

름없다. 안 올름 때어낸 듯 떨어졌다가도 다시 뭉치고 소용돌이처럼 밀려오로 휘감겼다. 분수처럼 솟구쳐 오른다. 검은 오로라처럼 하늘을 휘저으며 장관을 연출한다. 때로는 1km가 넘는 크기를 형성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하다. 저수지의 한적한 풍경과 오리떼, 자연의 아름다운 그 자체다. 군무는 짧게는 2~3분에서 길게는 20~30분까지 이어진다. 군무의 장관을 선사하는 가장오리들은 초봄까지 머물다 3월쯤 시베리아 등지로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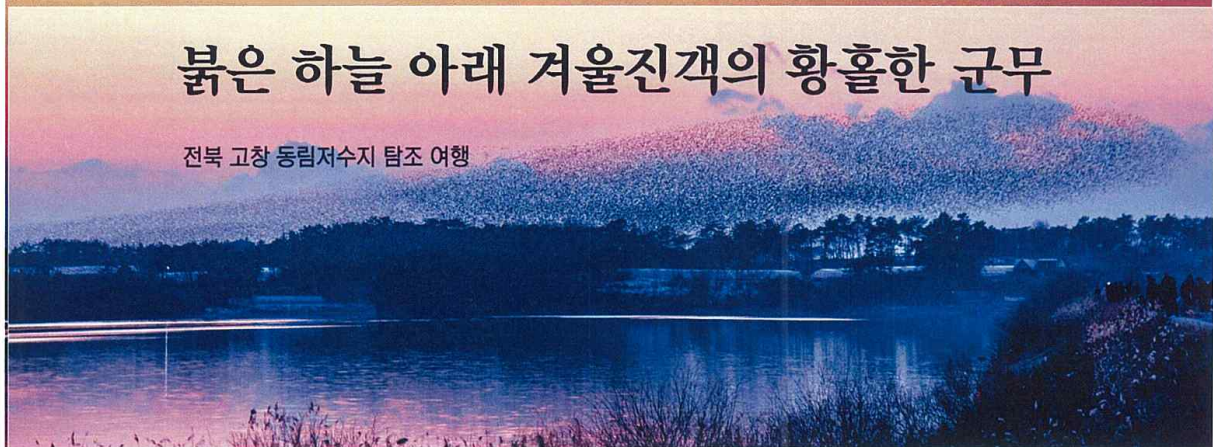
◆활영 팀=내비게이션에서 동림리 또는 동림저수지 검색하면 조금 더 큰 곳을 안내해준다. 주소로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681-4' 또는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674-5'로 검색해야 한다.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IC로 빠져 나오면 22번 국도를 따라 가다 제하시거리에서 우회전한 뒤 동산삼거리에서 성내면으로 빠져자마자 좌회전해 747번 지방도를 이용한다. 이후 신성리에서 '관동, 당사동, 만각동' 방향으로 좌회전해 좁은 농로를 따라가

면 된다. 선운산IC에서 5~20분쯤 걸린다.

저수지 북쪽 동쪽 끝부분이 포인트. 차랑을 15대가량 주차할 수 있다. 군무는 6시쯤 펼쳐진다. 조금 일찍 5시쯤 도착해 자리를 잡으면 석양과 함께 여유있게 군무를 감상할 수 있다. 군무를 카메라에 담으려면 표준이나 필라존 렌즈를 준비하면 된다. 삼각대는 사실상 필요없다.

가장오리는 몸길이 약 40cm, 날개길이 약 21cm의 기러기과 오리과의 조류다. 화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수컷이다. 얼굴 앞쪽 절반이 노란색이고 중앙의 검은 띠를 경계로 뒤쪽 절반은 녹색으로 뽀이 난다. 부리는 검고, 종자는 갈색이며 다리는 회색이 도는 노란색이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갈색이며 배를 제외한 몸 전체에 붉은 갈색의 얼룩무늬가 있다. 뺨과 눈 뒤쪽은 노란색이고 검은 무늬가 있으며 배는 흰색이다. 부리가 시작되는 부위에 흰 점이 뚜렷하다.

고창=글·사진 남호철 여행전문기자 hcnam@kmb.co.kr



붉은 하늘 아래 겨울진객의 황홀한 군무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탐조 여행

전북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동림저수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장오리떼가 지난 14일 저물녘 석양을 배경으로 화려한 군무를 펼치고 있다. 가장오리는 낮에 저수지에서 쉬다가 해가 지면 먹이활동을 위해 인근 논밭으로 이동한다.

작은 점들의 거대한 용틀임이여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가창오리떼의 화려한 떼춤 보러 떠나는 탐조여행



본격 겨울 추위가 이어져 선뜻 주말여행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때다. 겨울여행을 여행답게 해주는 게 눈경치지만, 이번 겨울은 눈마저 뜰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아직 눈부신 설경을 보기는 어렵다. 세상이 온통 춥고 황량해 보이는 이때, 눈에 확 뜨이는 장관이 펼쳐지는 곳이 있다. 바로 겨울철새 도래지다. 수많은 종류의 철새들이 날고 기며 저마다 멋진 자태를 뽐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환상적인 건 아마 가창오리들의 군무가 아닐까 싶다. 이맘때 군산·서천 금강호(금강하구)나 고창 동림저수지를 찾는다면, 수만~수십만마리의 가창오리들이 펼쳐 보이는 떼춤을 거의 매일 저녁 감상할 수 있다. 지난 주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가창오리 떼의 화려한 춤을 만나고 왔다.



1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해질녘 노을을 배경으로 가창오리 떼가 화려한 군무를 펼쳐 보이고 있다. 2 가창오리 떼가 뿔뿔히 길게 굽이치는 모습. 3 가창오리 떼의 비상을 기다리는 사진가들. 4 고창읍내에 자리한 고창읍성(모양성)의 복문. 5 조선 후기 실학자 이재 황윤석 생가.

전세계 가창오리 95% 우리나라서 월동

아는 만큼 보이는 건 철새도 마찬가지다. 간단하게 철새 공부 먼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겨울철새 도래지 중 하나다. 해마다 200종 안팎의 겨울철새 100여만마리가 시베리아 등지에서 찾아와 겨울을 나고 돌아간다. 환경부의 '2014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를 보면, 전국 195곳의 습지 등 철새 도래지에서 209종 127만마리의 철새가 관찰됐다. 개체가 가장 많은 것이 가창오리로 36만여마리에 이른다. 다음은 청둥오리 15만여마리, 큰기러기 7만여마리, 흰뺨검둥오리 6만여마리, 물닭 1만7천여마리 차례였다.

가창오리는 기러기목 오리과에 속하는, 몸길이 40cm가량의 무리지어 생활하는 소형 조류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겨울철새다. 2010년까지 70만마리 안팎이 확인됐으나, 지금은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서는 가창오리를 '레드 리스트'에 올리고, 멸종위기 단계 중 '취약종'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우리 환경부는 가창오리를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다가, 개체수가 많다는 이유로 해제했다고 한다.

가창오리 등 철새 생태에 밝은, 군산시청 철새생태관리과 한성우 학예연구사는 "전세계 가창오리의 95%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난다"며 "중국·일본에서도 월동하지만 수백·수천마리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겨울철 수만~수십만마리의 가창오리 군무를 볼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인 셈이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겨울철새
수만~수십만마리 환상적 군무
2월까지 매일 저녁 볼 수 있어
군산·서천 금강호에서도 감상 가능

가창오리의 국내 이동경로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베리아 지역에서 중국을 거쳐 날아와 우리나라 금강 하구, 고창 동림저수지, 해남 영암호·고천암호 등을 무리지어 오가며 겨울을 난 뒤, 3월을 전후해 당진 삽교호를 거쳐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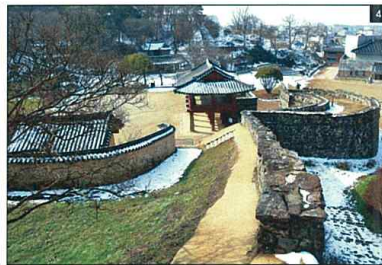
세계적인 가창오리 안식처 동림저수지

고창군 성내면과 흥덕면에 걸쳐 있는 동림저수지(흥덕저수지)는 일제강점기(1914년)에 만들어졌다. 금강호와 함께 대표적인 가창오리 월동지다.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 중에서도 핵심지역 중 한곳이다. 가창오리뿐 아니라 고니·쇠기러기·흰뺨검둥오리 등 다양한 철새 도래지이기도 하다.

이맘때 해질 무렵 동림저수지 제방 주변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건, 사진기·삼각대를 든 사진가와 탐조 인파, 이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다. 길이 900여m의 제방 동쪽 부분과 저수지의 동쪽 논가에 특히 많은 사람이 몰린다. 해가 진 뒤에도 밝은 서쪽 하늘을 배경으로 가창오리 군무를 사진 찍기 위해서다.

해가 지고 서쪽 하늘의 노을과 빛도 사그라들 무렵, 썩아 하는 소리와 함께 일부 가창오리들이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진가들은 바라보기만 할 뿐 셔터에 손을 대지 않는다. 한두 차례 낮게 떴지어 날아올라 좌우로 이동하며 '몸을 풀 뒤' 본격적인 비상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와, 일어난다." 새카만 점들의 움직임이 점점 커지며, 뭉쳐진 점들이 짙어지고 벌어지길 반복하자, 셔터 소리와 함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다. "10만마리는 넘겠다."

새카맣게 날아오른 가창오리 떼는 이리저



리 몇차례 방향을 바꿔 몰려다니면서 환상적인 군무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해 던져진 거대한 그물 형상이기도 하고, 허공에서 서로 몸을 부딪치며 다투는 용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10만여마리의 가창오리 때는 긴 띠를 이루며 하늘 한쪽을 가리는가 싶더니, 다시 거세게 방향을 틀어 돌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지며 솟아오르기를 되풀이하다, 제방 서쪽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본격적인 군무가 시작되고 사라지기까지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비록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먼 거리에서나마 군무를 제대로 마주한 사람들의 입에선 연신 탄성이 터져나왔다.

가창오리 군무는 동림저수지와 군산·서천 금강호에서 2월까지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11월께 우리나라에 날아와 해남 일대에 머물다 1월 중순 무렵부터 동림저수지나 금강호로 올라온다. 한성우 학예연구사는 “올해는 시베리아 기온이 높았기 때문인지 한 달 이상 늦은 12월 중순에 날아와 해남에 머물다, 예년보다 보름 일찍 동림저수지·금강호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는 20여만마리의 가창오리가 당분간 금강호와 동림저수지를 오가며 겨울을 날 것으로 내다봤다.

겨울철 동림저수지를 찾으면 제방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터줏대감이 한분 있다. ‘오리 할아버지’로 통하는, 신성리 관동마을 토박이 이재안(80)씨다. 겨울이면 매일 저수지 제방에 나와 쓰레기도 치우고 가창오리도 체크한다. 사진가들은 물론, 일부 조류학자도 저수지 방문 전 이씨를 통해 가창오리 도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가창오리를 봐왔다는 이씨는 “옛날엔 한겨울보다 북쪽으로 돌아가는 시기에 많이 보였다”며 “춘분 무렵 이 저수지에 모여 딱 사흘간 머물다 가

는데 저수지를 거의 다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다”고 말했다.

문화유산·선인 발자취 탐방 뒤 온천욕

고창의 대표적 볼거리는 아산면의 선운사와 고창읍내의 고창읍성(모양성), 그리고 세계유산인 고인돌 무리 등이다. 지금은 어딘다소 썰렁한 분위기지만, 선운사 동백숲도 고창읍성 소나무숲도 그리 멀지 않은 봄을 기다리며 추위를 견디는 모습이다. 굳이 서둘러 봄빛 풍경을 보고 싶다면, 공음면의 학원관 광농원을 찾으면 된다. 지난가을 파종한 보리는 찬바람 속에서도 곳곳이 자라올라 이미 초록 융단을 이루고 있다. 현재 보리씨가 3~4cm 길이로 자라올랐다. 아무도 찾지 않는 드넓은 초록 들판이 색다르게 다가온다.

저물녘 가창오리 군무 만나러 가는 길에 동림저수지 주변에서도 선인들 발자취를 만나볼 수 있다. 항일독립운동가 백관수 고택(성내면 덕산리)과 조선 영·정조 때의 실학자 이재 황윤석 생가(성내면 조동리)다. 두 집 모두 초기지만 꽤 규모 있는 고택이다. 이재 생가가 더 옛맛이 살아 있다. 이재 황윤석은 문학·경제·종교·천문·지리·풍수·의학·언어 등 다방면에 능통했던 학자로, <이재난고> <자지록> <산회잡고> 등 300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겨울여행의 마무리 일정으로는 역시 온천만한 게 없겠다. 고창읍 석정리 웰파크시티 안에 국내 유일의 게르마늄 온천 석정은 천이 있다. 온천수에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돼 면역력 증강, 신진대사 활성화,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한다. 구시포해변엔 해수찜질을 할 수 있는 해수찜월드도 있다. 신경통 등에 좋다고 알려져 중장년 여성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고창/글·사진 이병학 선임기자 leebh99@hani.co.kr



>>> 고창 여행 정보

가는 길 호남고속도로 정읍나들목에서 나가 22번 국도 따라 성내·흥덕 쪽으로 가다 성내중학교 앞 성내삼거리에서 좌회전. 성내면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우회전. 굴다리 지나 직진해 잠시 가다 ‘충각선녀보살’ 입간판 보고 좌회전해 시멘트길 따라 동림저수지 제방으로 간다.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나들목에서 나가 흥덕 거쳐 성내로 가도 된다.

먹을곳·묵을곳 고창의 대표적인 음식은 장어구이다. 고창읍내와 선운사 들머리 등에 장어구이를 내는 식당들이 즐비하다. 구워서 내오는 식당들(인분 2만~3만원)과 손님이 직접 구워 먹는 ‘셀프 장어’ 식당들(인분 1만~2만원)로 나뉜다. 성내면 근촌로 오복식당의 갈비탕·냉면, 고창읍 고창읍성 앞 모양성순두부의 순두부·두부보쌈, 고창읍내에 동방호텔·석정힐호텔과 아리랑모텔·모양성모텔 등이 있다. 선운산도립공원 자구에도 호텔·모텔들이 많다.

여행 문의 고창군청 문화관광과 (063)560-2456, 선운산도립공원 (063)560-8687, 고창읍성 (063)560-8055, 고창시외버스터미널 (063)563-3388.